

고전 읽으며 '뿌리' 배워요

서울·대구에 차문화고전 전문 강사 육성과정 개설



윤경혁 국어고전문학연구원(사진 맨 왼쪽)이 5월 11일 개강한 차문화고전 전문강사 육성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차가 ‘웰빙식품’으로 떠오름에 따라 인터넷 등에는 차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차문화의 역사와 실체를 제대로 아는 이는 드뭅니다. 차 고전을 배우는 일은 우리 차문화의 뿌리를 찾아나서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역 뒤편에 자리 잡은 (사)국어고전문학연구원 사무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앉은 이곳에서는 ‘차문화고전 전문 강사 육성과정’ 개강식이 열리고 있었다. 국어고전문학연구원과 원광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차고전 전문 강사 양성을 목표로 2년간 진행된다. 그간 단체나 학회, 개인 등이 개설한 차서 강

‘동다송’ 등 다서와 자료 한문 원문으로 강독 2년 수료후 ‘자적증’... “차 정신 찾는 계기”

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문 강사 육성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고 수료자에게 자격증까지 발급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의를 맡은 윤경혁(75) 원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차문화에 관심을 가져온 차고전 연구자. 그동안 각종 차 잡지 등에 다서 해석을 연재하고 <다문화연보> <다소> <가도명천차> <이상 홍익재> 등의 다서를 펴냈다.

“차문화는 우리의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풍부한 예술활동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입진 예단 이후 쇠퇴하기 시작한 우리 차문화는 조선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지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차문화 부흥 물결은 오늘날 1000만명을 헤아리는 음다인구를 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윤 원장은 현재의 차문화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 차문화의 역사와 뿌리를 연구하기보다 표피적이고 화려한 것에만 치중하는 현실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최근 급조된 중국다예와 차산업용 시찰 그리고 사치스러운 차도구 탐닉 등 본래의 차 정신과 어긋나는 풍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문헌지식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차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는 고전을 읽음으로써 올바른 차 정신을 세워보자는 뜻에서 강좌를 열게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전통을 배제하는 풍토가 학계 곳곳에 배어있었고, 이는 고전 더 나아가 ‘한문’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망각하는 수준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차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학원 석사 과정에조차 다서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고전에 바탕 하지 않고는 차문화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할 수 없습니다.”

강좌는 전문기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다경(茶經)> <동다송(東茶頌)> 등 60여 권의 다서와 600여 편에 이르는 다사(茶事) 자료 등을 원문으로 강독한다.

다서 원문을 읽기 위한 한자 독해 능력은 필수. 하지만 윤 원장은 한자 실력보다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차문화의 뿌리를 배워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년간의 수업으로 차고전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전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야겠지요.” (02)392-8551, www.mansidang.org

글 : 사진=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 나온 다서 2選



<글로벌 시대의...> 차 통한 에티켓 소개



<진품 보이차를 찾아서> 종류 구입 노하우 등

책자가 선보이는 5월, 서점가에는 다양한 다서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글로벌 시대의 차문화와 에티켓>은 구영분(우리문화연구원 동다원 원장), 신미경(성신여대 문화산업연구소 연구위원)씨가 공동으로 펴낸 책이다. 지은이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에티켓을 행동예절과 차를 통해 바르게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책을 펴내게 됐다”고 말한다.

1부 ‘차문화’에서는 차의 유래와 분류, 성분·효능, 차문화사, 차 우리기 등 차문화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고 있다. 더불어 차를 선택하고 보관하는 법, 우리는 법, 물과 불을 다루는 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실제 차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2부 ‘글로벌 예절’에서는 각국의 인사법과 테이블 매너, 직장인 예절, 초대·방문 예절 등을 다룸으로써 기본적인 매너를 익히게 도와준다. 차가 ‘사고’의 중요한 수단임을 고려한다면, 공항·식당·직장 등에서의 예의를 익혀두는 것은 차인의 기본 자세일 것이다.

<진품 보이차를 찾아서>는 이제 막 보이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보이차 입문서’로 읽힌다. 지은이는 <중화다서 선집(中華

茶書選集)> <공부차(工夫茶)> 등의 다서로 국내 차인들에게 익숙한 예위정환(葉羽晴川). <공부차>를 우리말로 옮겼던 박용모씨가 이번에도 번역을 맡았다.

책은 크게 ‘보이차 기초지식’ ‘현재 만날 수 있는 보이차’ ‘보이차 구매 및 보관과 소장’ ‘보이차 우리기’ ‘차마고도(茶馬古道)’의 다서 장으로 나뉜다.

특히 오늘날 중국 보이차 시장의 현실과 현재 차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이차를 소개하고 있는 ‘현재 만날 수 있는 보이차’에서는 보이차의 일련번호와 상표에 따른 특징, 생산연도 등을 자세히 소개해 차 구입시 실질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지은이가 소개하는 ‘보이차 구입 노하우’는 특별하지 않지만, 쉽게 간파하기 쉬운 것들이다. 지은이는 소문이나 상인들의 설명에만 의존해 ‘귀’로 구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직접 마셔보고 고를 것을 권한다. 또한 시향적임을 거치더라도 여러 찻집을 다니보면서 신뢰할만한 찻집을 선택하고, 보이차의 냄새와 표면의 상태, 탕액 등을 세심히 살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국내의 차문화 관련 인사 ‘총집합’

‘부산국제차문화대전 2006’ 내달 14일 열려

100여 개의 차회가 개설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차인들의 대중화마당이 열린다.

부산국제차문화대전 추진위원회(총괄본부장 이현제)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다섯 동안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우리나라 차 문화 단체를 아우르는 ‘부산국제차문화대전 2006’을 개최한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여연 스님(초의차문화

연구원 이사장), 홍소슬 한국차생산자연합회장이 공동대회장을 맡은 이번 행사는 ‘부산’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차문화 단체와 생산자연합회, 학술단체 등 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는 포부로 기획됐다.

이현제 총괄본부장은 “우리나라 근현대 차문화 발전에 정신적·물질적 토대를 마련한 부산에서 오늘날의 차문화사를 다시 쓸

초석을 마련하고자 국제차문화대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국제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차문화 행사도 국제적인 규모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의 향기로, 차의 마음으로’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행사기간 동안에는 조선 차도구 명품전과 차도구 디자인 공모전 같은 전시회와 찻잎 따기, 제다 실습, 다도교실 등의 체험행사, 명차(名茶) 품평 및 차 상품 포장 디자인 심평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한편 우리나라 차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차 산업 박람회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일본과 중국, 대만, 베트남의 차 협회가 참가해 각국의 차문화 소개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진품보이·진품오롱·철관음·오롱차
대홍포·화차·인삼오롱·외 40여가지의 차

보이차 전문점

瑞榮普洱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중소기업 참가비 인하 제4회 티월드 페스티벌

티월드 위원회(위원장 김정순)는 6월 21~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회 국제차문화대전(티월드 페스티벌)’의 참가비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 인하한다.

이는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의 ‘지방기업 및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내 차 산업계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참가비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다.

이로써 티월드 페스티벌 참가를 원하는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참가비(독립부스 기준)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엑스 전시2팀(02-6000-1079)이나 티월드 위원회(02-6000-8888)로 문의하면 된다.

* ‘평유화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는 필자서정으로 이번주입니다.

교보문고 비소설부분 베스트셀러 선정

중국차의 이해!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리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에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차사료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砂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 컬러(183×235), 288페이지 • 저자 : 김경우 • 가격 : 24,000원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

복달마! 돈달마!

무엇이 잘 안 풀리십니까?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안겨주는 친필달마도 황금돈이 수없이 모아드는 행운과 영험을 외면 하시겠습니까?
신중기도 100일 후 출시합니다. ₩300,000원

미타정사 성각 합장 TEL 02)389-5991, 2088